

디지털 시대 손글씨 쓰기가 갖는 의미와 쓰기 교육 강화 필요성

문 혜 정

(전북대학교 중문학과

BK21중(한)문고전적 번역대학원 박사 후 과정)

- I. 들어가기
- II. 손글씨의 중요성과 쓰기교육 강화 필요성.
 - 1. 修身
 - 2. 실용성
 - 3. 개인사의 자료
- III. 나오기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손글씨의 중요성과 학교 교육에 있어서 쓰기교육 강화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 修身과 실용성, 개인사의 자료 이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손글씨 쓰기에는 修身의 측면이 있다. 글씨는 그 사람의 배움이나 재능, 의지,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를 닦는 것은 바로 그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다. 글씨를 반듯하게 연마하는 과정을 거쳐 심신을 바로잡고 인격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이것은 바로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손글씨 쓰기가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면, 우리 학교 교육에서의 쓰기교육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덕목인 것이다.

다음으로 손글씨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먼저 손글씨는 디자인의 한 요소가 되어 상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손글씨는 이제 정보만을 전달하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상품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신 성장동력이 된 것이다. 또한 손글씨 쓰기는 시험과 같은 현실 속 경쟁 상황에서도 경쟁력의 한 요소가 되어, 자신의 지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손에 의한 창의력이 소실되기 전에, 그리고 힘들 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글씨 쓸 수 있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손글씨 자료는 개인의 역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필자의 친필 자료에는 한 개인만의 특별하고 유일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개인사를 정립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개인의 역사는 또한 사회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인류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의 자산이 쓰기 교육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기계 글씨에 묻혀서는 안될 것이니, 이를 통해서도 쓰기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손글씨는 다양한 필기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쓴 글씨를 말한다. 붓은 그 여러 필기도구 중의 하나이고, 붓글씨는 과거에 가장 일반적인 손글씨였

다. 펜이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 붓으로만 필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손글씨 자체를 포기하고 기계 글씨만을 선호하는 풍조는 분명 바뀌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손글씨, 기계글씨, 修身, 실용성, 개인사.

I. 들어가기

현대인은 부지불식간에 여러 형태의 문자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 문자의 존재 형식은 다양각색이다. 그 중 ‘손글씨’란 ‘기계가 아닌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쓴 손맛이 살아있는 글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붓이나 펜, 연필 등 다양한 필기도구로 쓴 글씨가 포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손글씨’란 ‘기계 글씨’의 반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여기에는 ‘붓글씨’인 ‘서예’도 포함된다.

이런 손글씨는 과거에 비하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현시대에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현시대에는 편지나 일기, 레포트 논문 등의 필기 작업이 대부분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일련의 기록들이 직접 손으로 쓰지 않아도 컴퓨터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작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흑자는 이제 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 예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고 편한 컴퓨터 자판 앞에서 ‘손글씨’를 포기하고 디지털화된 글씨에 만족하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우리들은 옥외 광고물이나 상품, 각종 포스터 등 주변 곳곳에서 손으로 쓴 글씨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문자와 관련된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라든지 캘리그래피(Calligraphy)라는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획일성을 거부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본 속성 때문일 것이다.

손글씨는 그 글씨를 쓰는 사람만이 표현해 낼 수 있는 유일무이의 필체이고, 이런 자기만의 독특한 필체는 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글씨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똑같은 글꼴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해 낸다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력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나 캘리그래피(Calligraphy) 같은 서체 디자인이

* 본 논문은 21세기 교육 혁신의 신 주제인 ‘서예’의 가치를 알리고, 그 가치에 걸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그 선행 작업으로 작성된 것이다. 시대를 거듭해 갈수록 서예의 가치는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고, 서예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일반인들에게 서예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런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손글씨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예 회복’이라는 큰 명제를 앞에 두고 작성한 것임을 명시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런 손글씨의 예술적 매력을 재인식하고 그런 매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한 해법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디지털화 된 시대에 이렇게 재인식되고 있는 손글씨가 갖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 그런 재인식에 바탕하여 쓰기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글의 전개 순서는 우선 손글씨는 심신의 연마 즉 修身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광범위하게 짚어 보고, 다음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서사 활동이 컴퓨터로 대체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손글씨는 실지 생활에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고 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실례를 들어 논할 것이다. 끝으로, 손글씨는 개인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디지털 시대일수록 쓰기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II. 손글씨의 중요성과 쓰기교육 강화 필요성

1. 修身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의 글씨는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경매시장에서도 고가에 낙찰된다. 반면에 이완용의 글씨는 그가 재주있는 서예가라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높은 가격에 팔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리, 즉 ‘글씨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명제 때문이다.

清代 劉熙載는 『예개·서개』에서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書如其人)’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글씨는 같은(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배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 사람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다. 결론지어 말한다면 글씨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따름이다.(書, 如也。如其學, 如其才, 如其志, 總之曰: 如其人而已。)¹⁾

이 문장에 보이는 ‘서여기인’이라는 명제는 과거 수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제기되어 온, 예술작품과 그 작가와의 관계를 총정리하는 성격을 지닌다. 유희재는 그 작가의 배움(學),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才), 그 사람의 뜻(志)이라는 구체적 요소를 삽입하여 ‘글씨’와 ‘사람’의 관계를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글씨는 그 사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인격수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희재는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筆性和 墨情은 모두 그 사람의 성정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성정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글씨 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筆性墨情, 皆以人之性情爲本. 是則理性情者, 書之首務也.)²⁾

위의 글에는 글씨를 쓰려는 사람이 성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글씨 역시 올바르게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담겨있다. 이렇게 작품과 인품의 관계를 역설한 견해는 역대 서론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蔡邕, 孫過庭, 王羲之 등도 모두 이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書란 풀어내는(散) 것이다. 쓰고자 한다면 먼저 품은 마음을 풀어내고 거리낌없는 마음에 맡겨서 써야할 일이다.(書者, 散也. 欲書先散懷抱, 任情恣性, 然後書之.)³⁾ 蔡邕 「筆論」

그 뜻과 성정을 表達하게 하고 그 슬픔과 즐거움을 표현해 낸다.(達其情性, 形其哀樂.)⁴⁾ 孫過庭 「書譜」

대저 글씨는 평온하고 안온한 것을 귀히 여긴다.(夫書字貴平正安穩.)⁵⁾ 王羲之 《書論》

우리나라 추사 김정희의 유명한 서예관 ‘文字香, 書卷氣’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추사는 「書示佑兒」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 1) 『藝概·書概』 240 조항, 劉熙載 『劉熙載文集』 (江蘇古籍出版社, 2001). p.187.
 - 2) 『藝概·書概』 232 조항, 위의 책. p.186.
 - 3) 蔡邕 「筆論」 『歷代書法論文選』 上 (臺北, 華正書局, 1984). p.5.
 - 4) 孫過庭 「書譜」, 위의 책, p.114.
 - 5) 王羲之 「書論」, 위의 책, p.26.

(隸法은) 가슴속에 청고 고아(淸高古雅)한 뜻이 들어 있지 않으면 손에서 나올 수 없고, 가슴속의 청고 고아한 뜻은 또 가슴속에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가 들어 있지 않으면 능히 팔 아래와 손 끝에서 발현되지 않는다. (非有胸中, 淸高古雅之意, 無以出手, 胸中淸高古雅之意, 又非有胸中文字香書卷氣, 不能現發於腕下指頭.⁶⁾

이 문장에 표현된 “文字香, 書卷氣”는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다. 이는 선비의 그림이나 글씨에는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고품격의 향기나 기운이 있는데 이것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 학문과 인격 수양에 정진하였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서단이 이런 추사의 인격 중심 서예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김병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예가 단순히 손으로 익히는 기능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손으로 익히는 기능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때 비로소 서예의 격이 높아진다. 현재 한국의 서예나 문인화가 조선 말기나 항일시대의 수준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서예가나 문인화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조선 시대 문인들이 갖추었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⁷⁾

위에서 언급한 견해와 같이 훌륭한 서예작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서예’는 바로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손글씨’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상생활의 필기가 붓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위에서 말하는 ‘서예’는 대표적인 ‘손글씨’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글씨와 그 글씨를 쓰는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과의 밀접한 관계를 적용하는 실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글씨에 관한 학문 중에 필적학(筆跡學, Graphology)이라는 분야가 있다. 그 사람이 쓴 글씨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나이 등을 알아내는 학문 분야이다. 이는 서양에서 먼저 제기된 학문이지만 이런 견해는 앞서 언급한 동양의 ‘서여기인’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필적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6) 김정희, 『書示佑兒』, 신호열 편역 『완당전집』 2, 제7권, 雜著, (민족문화추진회, 1996), p.122.

7) 김병기, 「한국의 서예 교육, 어떠한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21세기 문화 창달과 개혁의 새로운 Agenda ‘한자와 서예교육’—」, 『한국서예비평학회』, 2008, p.65

필적에 관한 학문으로, 서상학(書相學)·필상학(筆相學)이라고도 한다.……필적학의 영역은 ① 글씨를 쓸 때의 동작과 행동의 생리학·심리학 연구, ② 필적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응용(필적심리학), ③ 필적에 의한 개인 식별의 연구와 응용(필적감정), ④ 글씨를 쓰기 위한 필기재료(펜·연필·잉크 등)의 화학적·물리학적 연구와 응용 등에 걸쳐 있다.……독일의 생리학자 W.프라이어는 1895년 그의 저서에서 필적은 대뇌(大腦)가 지배하는 생리작용이므로 손으로 쓰거나 입으로 쓰거나 발가락으로 써도 그 특징은 일치하고 있어 원칙상 '뇌적(腦跡)'이라고 함이 옳다고 설명하였다.……필적학 중에서 필적감정에 관한 분야는 각국마다 대개 범죄수사를 맡는 경찰관계에서 연구되며 한국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내에 문서감정실(文書鑑定室)을 두고 광범위한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그 감정결과는 법률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 인감(印鑑) 대신 서명(사인)이 유행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의 은행에서는 필적감정이 일상적인 '서명대조' 업무로 행하여지며 컴퓨터에 의한 서명의 자동감정이 개발되었다.⁸⁾

윗 글에서 언급한 독일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필적은 '腦跡', 즉 '뇌의 흔적'이다. 손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이 도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고가 발현된 것이 바로 필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필적 감정을 통해 그 사람의 의식이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적 감정'은 수사학(搜查學)에서 범죄 감식을 위해 종종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브라이언 이니스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필적학-사람의 필체는 지문만큼이나 개인에 따라 독특하게 다르다. 또한 임의로 바꾸기도 불가능하다. 글 쓰는 손을 사고로 다쳐 손을 쓸 수 없을 경우에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손으로 글을 쓰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손으로 쓰더라도 원래의 필체가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필적 전문가들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잠재적인 범죄 충동이나 실제 범죄 행위와 관련된 개인의 성격적 특성까지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⁹⁾

8)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9) 브라이언 이니스 지음/이경식 옮김,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긴다』, (Human&Books, 2005). p.300-301.

대부분의 필적학자들은 어떤 사람의 필체를 보고 그 사람의 심리적인 특징을 가려낼 수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몇몇 사람들은 행동 분석이나 범죄 수법 분석만큼이나 정확하게 범인의 특징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의 주장이 때로는 틀리지 않았음이 사건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다.¹⁰⁾

윗 내용에 따르면 ‘필적’은 개인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은 설사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으로 쓰더라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심지어 발로 쓰더라도 그 개인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필적’이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뇌’로 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¹¹⁾

각종 범죄를 수사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필적은 말한다』라는 저서를 저술한 구본진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건을 대할 때마다 유독 내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필적’이다. 사람과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검사라는 직업상, 나는 어떤 단서도 흘려보내선 안 된다는 긴장감 속에서 사건을 대한다. 하여 검사실에서 수사를 하다보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필체를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조사자의 서명이나 진술서, 사건 관계자들의 자필 문서 등을 보게 된다. 그 글씨들을 보면서 나는 글쓴이가 글씨와 너무도 많이 닮았음을 확인하곤 했다. 아니, 글씨가 글쓴이를 닮는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오랫동안 남다른 관심을 갖다 보니, 피조사자들의 사건 경위나 말투, 행동들을 잠깐 보고도 미리 글씨체를 알아맞히는 神技에 가까운 능력까지 발휘하게 되었다. 지금도 처음 만나는 사람의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개성이나 성격을 대충 알아맞히는데, 나의 집착에 가까운 글씨에 대한 오랜 탐구 경험의 결실인 것이다.....단적으로 말하자면, 필적은 인간을 말해준다. 필적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를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필적학자들은 필적을 ‘뇌의 지문’이며 뇌

10) 브라이언 이니스 지음/이경식 옮김, 『프로파일링』, (Human&Books, 2005), p.245.

11) 이렇게 필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방법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많다. 토머스 키다는 『생각의 오류』에서 필적 분석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였다. (토머스 키다 지음/박윤정 옮김, 『생각의 오류』, 열음사, 2007.11. p.193.) 그러나 본 논문에서 필적이 수사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필적이 搜查의 결정적인 근거로서 그것을 통해 범죄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를 추적하는 과정이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서가 되어 그 범죄를 밝혀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이니스는 『프로파일링』에서 “이 분야가 정식 수사기법으로 인정받으려면 아직도 먼길을 가야 한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필체분석 작업은 체포된 범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추후에 확인하는 작업이었다.”(앞의 책, p.245.)고 말하기도 하였다.

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뇌가 쓴 흔적이라고 말한다.……필적은 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뇌가 시키는 대로 쓰는 행위라는 것이다.¹²⁾

작가는 검사로서 피조사자를 현장에서 직접 대하고 느낀 체험을 위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직접 체험과 필적학 지식, 그리고 오랜기간 필적자료 수집을 통해 체득한 직감 등을 바탕으로 해서 “글쓴이가 글씨와 너무도 많이 닮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작가는 서문에서 “글씨에서 나는 인생을 배웠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슴에 꽂히는 일이 바로 ‘글씨’라고 강조하였다. 글씨는 그가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열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불의와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좇아 대의를 버리곤 하는데, 그는 그것을 항일지사와 친일파의 글씨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그 차이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사실 수집 초기에는 항일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체를 비교해본다거나, 다르다는 걸 의심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수집품이 늘어나 몇백 점에 이르자, 항일과 친일 필적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절로 느껴졌다. 부지불식간에 체득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작가가 글씨를 통해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 설명하기 어렵지만 글씨에서 작가의 정신, 작가의 인격이 살아 움직이는 형체로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나는 항일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를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의 글씨들도 살펴보았다. 주로 『權墨』을 통해서였는데, 특기할만한 점은 글씨 형태가 시대에 따라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글씨에서 보여주었던 지식인들의 단아한 기풍이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와서는 더욱 경직되기도 했지만 상당수 인물에게서는 점점 흐트러지고 반듯한 형태도 무너졌으며, 극소수 인물은 극단적으로 혼란스러운 형태를 보였다.……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은 많은 지식인을 굴절시켰고, 이는 글씨체의 변화로 나타났다. 항일운동가와 친일파의 필체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유형을 발견하자 나는 정몽주, 이개, 성삼문, 권율, 조현, 광재우 등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인물들의 글씨도 확인해 보았다. 각종 사화, 권력 찬탈의 주인공들 글씨도 꼼꼼히 확인해 보았다. 명예욕, 권력욕, 변절성 등이 글씨체에도 드러났다. 나는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마음이 흥분되었다.¹³⁾

12) 구본진, 『필적은 말한다』, (중앙북스, 2009), p.27-31. 참조.

13) 위의 책, p.58-62. 참조.

윗 글에서 작가는 항일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 그리고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 작가들의 글씨를 분석해 보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글씨를 통해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항일운동가의 글씨에서는 그들의 강직한 성품을 느낄 수 있었으며, 친일파의 글씨에서는 그들의 변절성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혼란한 시대에 쓰여진 글씨는 혼란한 지식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고,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인물들의 글씨에서는 그들의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작가는 여러 사람의 글씨를 확인해 본 결과, 서체, 행간, 자간, 형태, 크기가 각각 다르고 또한 글씨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나 풍모가 다름을 확인하였다고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글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김구 선생의 서풍은 안진경체에 가깝다. 웅혼한 기상과 강인함, 그 어떤 날카로운 철심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기세, 호랑이가 큰 발톱으로 큰 바위에 걸터앉아 웅크리고 있는 듯한 웅장함이 느껴진다. 안진경의 강직하고 굴하지 않는 추상 같은 충절을 백범 또한 스스로 닮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토로한 것이 아닐까. 김구의 서체는 소동파의 특징도 보인다. 틀에 구애되지 않고 붓 가는대로 구름에 달 가듯이 썼다. 글씨에서 꾸밈이 없는 천진함이 느껴진다. 大巧若拙이라는 말처럼 연미하고 유려하지는 않지만 기교를 뽐내지 않으며, 언뜻 보면 졸렬하고 어눌한 듯하나 자주 대하면 달빛에 매화 향기가 떠다니는 것처럼 은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선생의 글씨는 야위거나 메마르지 아니하고 살찌면서 부드러움을 내포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인자하고 후덕한 인품을 엿볼 수 있게 한다.¹⁴⁾

안중근 의사의 글씨를 보면 각이 두르러지고 雄建莊重하여 큰 바위에 올라 굵은 발톱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수사자의 서릿발 같은 기상이 느껴진다. 필적한 이론으로 분석해보면 안중근의 글씨는 의지가 매우 굳고 바른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고 활달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있는 성품이다.¹⁵⁾

14) 위의 책, p.104-106.

15) 위의 책, p.74. 이러한 작가의 견해는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는 자신의 수집경험과 자신의 심미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증거자료를 제시해 가며 자신의 논거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로 볼 때 글씨를 통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글씨를 반듯하게 다듬음으로써 한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반듯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반듯한 글씨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내와 열정이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虞世南의 글을 보기로 하자.

글씨를 쓸 때는 마땅히 시선을 거두어들이고, 듣는 것을 멀리해서 생각을 끊고, 정신을 집중시켜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운이 화목하게 되면 묘한 경지에 합치된다. 마음과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 글씨는 기울게 되고, 뜻과 기운이 화목하지 못하면 글씨는 엇어진다.(欲書之時, 當收視反聽, 絕慮凝神. 心正氣和, 則契于妙, 心神不正, 書則敍斜, 志氣不和, 字則顛仆.)¹⁶⁾

글씨는 이처럼 여러 가지 정화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바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글씨를 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심신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글씨 연마를 통해 심신을 바로잡는 ‘필적요법’은 때로 실효를 거두기도 한다.

특히 붓글씨를 연마함으로써 심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고, 2003년 세계 서예 비엔날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서예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었다.¹⁷⁾

이 학술대회에서 원광대학교 김수천 교수는 서예치료연구의 필요성과 서예가 심

16) 虞世南 「筆髓論·契妙」, 『歷代書法論文選』上, (臺北, 華正書局, 1984). p.103.

17)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국제서예학술대회 논문집Ⅳ』, 2003.

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대만의 高尚仁 교수는 서예활동을 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과 그로 인한 정신적 질병과 신체적 질병의 치료효과, 그리고 서예교육과 서예지도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특히 『書法心理學』 18), 『書法心理治療』 19)와 같은 자료를 통해 누차 서예치료에 대하여 강조한 적이 있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또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성향이 있는 아동이나,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예 치료 임상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서예의 치료 효과는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이러한 치료요법은 단지 이렇게 붓으로 쓰는 글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쓰기 용구를 이용한 글씨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Grapho-therapy’는 우리 말로 ‘필적요법’, ‘필적진단’, 또는 ‘필적 심리학’이라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이 ‘필적요법’은 손글씨를 연습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방법인데, 이에 대해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필적요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다. 그것은 특별한 효과를 산출해 내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으며 당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하루에 네 장 정도를 정확하게 쓰는 것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한 달 안에 미묘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필적요법을 실행한지 석 달이 되면 그 변화는 엄청나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변화를 인식하게 될 것이며 당신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당신은 삶의 기술을 개선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당신의 목표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놀랄 만한 변화를 체험하여 당신 인생에 중요한 개선을 경험할 것임을 확신한다. 당신이 만약 체크북(수표장)에 글씨 쓰는 정도로만 글씨를 쓴다면 변화는 더 더디게 올 것이고 그 변화량도 극히 미미해서 거의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손글씨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면 결국은 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Graphotherapy is very concrete and predictable. It is designed to produce specific outcomes, so you will know what changes to expect before they occur and will be able to recognize the subtle changes taking place in yourself even as

18) 高尚仁 著, 『書法心理學』, (東大圖書公司, 1986).

19) 高尚仁 編著, 『書法心理治療』, (香港大學出版社, 2000).

they are occurring. You will see subtle results within a month if you focus on writing correctly four or more pages a day. Within three months of starting your program in graphotherapy, the transformations will be so dramatic that others will see a significant improvement and gain a more favorable opinion of you. You may expect to improve your life skills, y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to gain such confidence in yourself that you can set your goals higher. I guarantee that from this place of strength you will experience major improvements in your life. If you write only in your checkbook, changes will take much longer and be so subtle that they may pass unnoticed, but they will eventually occur if you make the changes in your handwriting.)²⁰⁾

이 글에서는 글씨를 바꿀 수 있다면 삶 자체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단순히 몇 글자 써인하는 정도로만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루에 몇 장씩 꾸준히 연습하여 글씨를 변화시킨다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글씨가 변하면 생활이 바뀌고 인간관계도 개선되며, 그럼으로써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이트에서는 'Grapho-therapy(필적요법)'의 부제로 'Success at Life Through Handwriting Analysis(손글씨 분석을 통한 삶의 성공)'를 제시하고 있다.

붓이든 펜이든 어느 손글씨의 경우라도 마음의 평화가 깃들지 않고서는 바르고 가지런한 글씨를 쓸 수 없다. 한 글자를 다 쓰기도 전에 머리 속이 다른 생각들로 가득차서 마음이 다급해진다면 글씨를 잘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나 상상력도 발전시킬 수 없다. 따라서 차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마음을 수양하고 개인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좋지 못한 성격이나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한다. 성격이나 습관을 바꾼다면 인성이 바뀔 수 있고 그렇게 인성이 바뀐다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손글씨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손글씨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 <http://www.graphotherapy.com/>

2. 실용성

‘손글씨’는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이제는 글씨 자체도 디자인의 요소가 되었다. 글씨가 단순히 문자가 아닌 문화상품으로서 ‘이미지’를 전달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각종 옥외 광고, 영화 포스터, 음반이나 책의 표지, 영화와 드라마 제목, 기업 홍보물 등 문자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려는 매체에서 ‘디자인’을 의식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매체에 쓰여진 글씨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각 상품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새로운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글씨에서는 이전의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느낌과는 달리 생생히 살아있는 손맛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판되는 서적의 경우 겉표지의 디자인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책제목이 이전의 고딕체나 명조체에서 손글씨로 재디자인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변화는 그 책의 느낌을 한결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출해 낸다.



재판된 책의 표지(2004, 2005, 2006)

또한 재판하면서 붓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킨 글씨를 표지로 내걸고 그 題字한 사람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래 제시하는 서적 『바람과 구름과 비』의 재판본에서는 ‘제자 필묵 이상현’²¹⁾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림 8) 이것은 그

만큼 손글씨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표현이다.



그림 7



그림 8

그렇다면 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글씨를 멀리하고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쓴 글씨를 선호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손글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손글씨에서 우리는 컴퓨터 자판을 통해서서는 느낄 수 없는 ‘인간미’, ‘편안함’, ‘사람 냄새’, ‘자유분방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매마르고 정형화된 디지털 글씨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다. 이러한 매력이 상업적인 측면에서 더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먹의 번짐 효과를 이용한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그 느낌이 훨씬 친화적인데, 붓이 종이 위를 스치면서 이루어지는 飛白 효과라든지 먹물이 종이 위에서 부드럽게 펼쳐지면서 이루어내는 자연스러움은 이 문자 디자인만이 지니는 개성이다.

‘서예’를 흔히 ‘캘리그래피(Calligraphy)’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원래 ‘캘리그래피(Calligraphy)’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Kalligraphia’에서 유래된 것으로, 동양의 ‘서예’의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서체’라는 단어는 붓을 사용해 개성있는 필치로 써낸 ‘캘리그래피’ 작품의 느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영화포스터나 책 광고 등의 자료들에서는 그러한 캘리그래피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21) 이상현 시는 오래전 ‘필묵’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심화’ 대표로 재직중이다.



이러한 캘리그래피로 작업된 작품들을 통해 문자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전해받을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은 컴퓨터로 쓴 획일한 글씨에서 느껴지는 느낌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손글씨가 서예에 능통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그 느낌은 더욱 강렬할 것이다.

잘 알려진대로 강암 송성용 선생의 작품인 덕진공원의 「연지문(蓮池門)」, 「호남제일문(湖南第一門)」, 원광대 여태명 교수의 「축제」라는 영화포스터 제목, 「전주」틀게이트 글씨, 하석 박원규 선생의 「취화선(醉畵仙)」, 「천년학(千年鶴)」 등의 영화포스터 제목, 김병기 교수의 「화려수(華麗秀)」 상품명, 신영복 교수의 「처음처럼」 로고, 그 외 「백세주」, 「산사춘」 등은 모두 서예에 능통한 사람들의 글씨들이다. 또한 각종 옥의 간판들에서도 쉽게 손글씨를 찾아볼 수 있다.



손글씨는 이런 상업적 현실성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교육적 실용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도 손글씨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생활태도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을 조성한다.

먼저 대학 입시에 있어서 논술 시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명문대학 입시에서

논술은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요소가 되었으며, 그 논술은 바로 직접 손으로 쓰는 글쓰기 작업이다. 컴퓨터의 활용이 일반화 되면서 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이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다. 글씨를 잘쓰고 못쓰고는 차치하고라도 펜을 잡고 직접 글씨를 쓰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글씨는 엉망이고 심지어 연필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문제삼지 않는데,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다. 학생이나 선생이나 논술의 내용에만 치중하다 보니 글씨를 쓰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다고 하여도 시험은 하나의 형식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 형식은 그 훌륭한 내용을 손으로 답안지에 직접 써내는 것이다. 그 내용을 컴퓨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지에 직접 글씨로 써내야 하는 이상, 글씨를 잘 쓰지 못하면²²⁾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로 돌아간다. 평소에 글씨를 자주 써서 자연스럽게 글씨를 써내려 가는 학생은 긴장을 하는 시험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내용을 풀어낼 수 있다. 그러나 눈으로만 보고 컴퓨터 자판에만 익숙해져 있을 뿐 실제 글씨 쓰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과 같은 긴장상황에서 손글씨가 부자연스러워 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만 논술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각종 고급 시험의 경우, 예를 들어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노무사·관세사·법무사 등의 2차 시험은 모두 서술형 글쓰기이다. 이런 시험들에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내용을 적어내야 한다. 시간과의 다툼이고, 글씨 쓰는 속도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의 당락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평소에 글씨쓰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제 시간내에 모두 글씨로 표현해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글씨쓰기 자체의 부담이 표현의 부조리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글씨쓰기 습관의 기초는 초등학교 시절에 결정된다고 한다. 생물의 행동 발달 이론에서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는 시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생물은 발달하면서 여러 종류의 학습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특수한 유형의

22) 여기에서 글씨는 잘쓴다는 것은 예쁘게만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은 발달의 특정한 시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는 선천적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정적 시기란 유기체가 특정 영향에 대해 특별히 민감한 발달단계를 의미하며, 비교적 짧고 제한된 기간을 말한다.²³⁾

Erikson은 발달의 점성적 원리를 주장했는데, 즉 인생 주기의 각 단계는 이 단계의 과업이 우세하게 출현하는 최적의 시간(결정적 시기)이 있고, 그리고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전개될 때 완전한 기능을 하는 성격이 형성됨을 암시한다.²⁴⁾

여기에서 말하는 결정적 시기란 배워야 할 시기에 적절히 배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러기가 엄마를 인식하는 ‘결정적 시기’에 다른 존재를 접했다면 그 존재를 엄마로 인식한다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을 배워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어수선했던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든가 하는 등이다. 언어를 습득한다거나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에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 이 시기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체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글씨 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바로 이 ‘결정적 시기’라고 알려져 있다. 이 결정적 시기에 글씨쓰는 습관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보다 편하고 바르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컴퓨터와 게임기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무엇을 안내해야 하는 지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필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절 ‘손글씨 쓰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3. 개인사의 자료

글씨는 그 글씨를 쓴 사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에 남아있는 개인의 손글씨는 그 개인의 역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각종 유명 건물에 남아있는 주련과 현판, 옛 선인들의 간찰, 그리고 유명 서예 작품이나 싸인 등은 개인

23) R.Wicks-Nelson/정명숙 역, 『아동기 행동장애』, (시그마프레스, 2004). p.508.

24) 장진선, 『인간관계 심리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2005). p.41.

의 친필 자료로서 한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한다.

앞 장에서 언급한 “文字香, 書卷氣”라는 추사의 서예관과 그의 인문학적 사고 방식은 현재 남아있는 그의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는 추사 김정희(1786-1856년) 선생의 고택이 있다. 이 고택에는 수많은 주련과 현판이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추사라는 인물을 바라볼 수 있다. 서예의 대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가 훌륭한 서예 작품으로 남겨 놓은 이런 주련과 현판들은, 그가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품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등의 이야기를 전해내고 있는 듯하다. 다음 주련에 쓰여진 몇 문장을 통해서 그의 사고와 생활을 이해해 보자.

淺碧新瓷烹玉茗(파르스름한 새 차주전자에 차를 끓이고)
硬黃佳帖寫銀鉤(퇴색한 공책에 시를 베껴 쓰네.)

書藝如孤松一枝(글씨의 기세는 외로운 소나무의 한 가지와 같다)
畫法有長江萬里(그림 그리는 법은 장강 만리와 같은 유장함에 있다)

且將文字入菩提(문자를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간다)
唯愛圖書兼古器(오직 사랑하는 것은 그림과 책 그리고 옛 물건이다)

大烹豆腐瓜薑菜(두부, 오이, 생강, 나물 등 푸성귀라도 풍족하게 삶아놓고)
高會夫妻兒好孫(가장 좋은 모임은 우리부부와 아들딸, 손자손녀들과의 만남이라 오..)





위의 주련에 쓰여진 추사의 여러 작품을 통해 차를 마시고 공부를 하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읊겨 적는 여유를 엿볼 수 있으며, 또한 그의 학문세계와 소박한 일상 생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주련에 쓰여진 표현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참가치를 되새겨보게 한다. “두부, 오이, 생강, 나물 등 푸성귀라도 풍족하게 삶아놓고, 우리 부부와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모여 앉으면...”, 이 표현에서는 권력과 명예, 재물에 대한 사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야말로 소박함에 폭 젖어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깨달은 자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후세인들은 남아있는 손글씨 작품을 통해 그 개인의 역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주 객사 정면에는 ‘豊沛之館’이라 쓰여져 있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있다. (그림 40) ‘豊沛’란 본래 중국 漢고조인 劉邦이 태어난 곳이다. 전주는 조선을 건국한 太祖 이성계의 고향이기 때문에 전주의 객사를 ‘풍패지관’이라 이름했다고 전해진다. 이 현판은 중국 大使臣이자 대문장가인 朱之蕃이 瓢翁 宋英壽 선생을 만나기 위해 한양에서 내려오던 길에 전주 객사에 들러 쓴 작품으로, 그에게 보은하기 위하여 쓴 징표이다. 이에 관한 사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0

『표옹문집』에 따르면 표옹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다음해인 1593년 송강 정철의 서장관(書狀館) 자격으로 북경에 갔다. 그의 나이 38세였다. 그때 조선의 사신들이 머물던 숙소 부엌에서 장작으로 불을 지피던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무언가 입으로 중얼중얼 읊조리고 있었다. 표옹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장자의 「남화경(南華經)」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가. 장작으로 불이나 때는 불목하니 주제에 「남화경」을 외우는 게 하도 신통해서 표용은 그 청년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너는 누구길래 이렇게 천한 일을 하면서 어려운 「남화경」을 다 암송할 수 있는냐?”

“저는 남월(南越)지방 출신입니다. 과거를 보기 위해 몇 년 전에 북경에 올라왔는데 여러 차례 시험에 낙방하다보니 가져온 노자가 떨어져서 호구지책으로 이렇게 고용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 그러면 그동안 과거시험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였는가 종이에 써보아라”

표용은 청년을 불쌍히 여겨 시험 답안지 작성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청년이 문장에 대한 이치는 깨쳤으나 전체적인 격식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조선의 과거시험에서 통용하는 모범답안 작성 요령을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나서 표용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중요한 서적 수 편을 필사하여 주고, 거기에다가 상당한 액수의 돈까지 손에 쥐어주었다. 시간을 아껴 공부에 전념하라는 뜻이었다. 그 후 이 청년은 과거에 합격했다고 한다. 이 청년이 주지번이다. 한마디로 표용은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지감(知人之鑑)이 있었다는 이야기다.²⁵⁾

주지번은 표용 선생을 만나고 2년 후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였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일급 문장가가 되었다. 표용 선생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대문장가가 된 주지번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전주 객사에 이런 현판을 남겨 후세에 아름다운 사연을 전하였다. 만약 주지번이 이 현판 글씨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그와 표용 송영구 선생과의 인연은 인구에 회자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현판과 주련이 더 이상 옛 건물에 달려 있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역사의 숨결이 담겨진 문화재의 얼굴”²⁶⁾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현판과 주련은 선인들의 멋과 운치를 자아내고 있고, 그들 문화생활의 자취를 생생하게 전해내고 있다.

조선시대 명군으로 꼽히는 영조와 정조에 관한 개인사 역시 그들이 직접 쓴 글씨를 통해 더 명확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를 둔 영조는 모친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는데, 이는 그가 직접 쓴 제문을 통해 더욱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임금이 직접 제문을 쓰는

25) 조용헌,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푸른역사, 2002). p.320-321.

26) 문화재청 편, 『궁궐의 현판懸板과 주련柱聯』, (수류산방, 2007). p.5.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1726년에 쓴 ‘숙빈 최씨치제문초(淑嬪崔氏致祭文草)’(그림 41,42)는 국왕이 쓴 유일한 제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씨는 또한 영조대왕의 평소 필체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는 한 나라의 국왕임에도 후궁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의 제사를 직접 지낼 수 없었고, 그런 어머니를 위해 직접 제문을 썼다. 제문에서 그는 ‘지금은 사계절에 드리는 제사조차도 몸소 행하지 못하니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영혼은 어두운 저승에서 반드시 서운해 하실 터입니다. 항상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한밤중에 눈물을 삼키곤 합니다’라며 ‘아, 오늘 이 술잔에 6년 동안 펴지 못했던 마음을 펴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도 그가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쏟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영조는 애뜻한 효심을 실친하였던 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1744년에 어머니 숙빈 최씨의 묘에 墓碣文(무덤 앞에 세우는 돌비석의 비문)을 직접 지었다. 이 글에서 그는 “25년 동안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 듯하다.....붓을 잡고 글을 쓰려 하니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뒤덮는다. 옛날을 추억하노니 이내 감회가 곱절이나 애뜻하구나.”라고 하여 어머니에 대한 정을 드러내었다.(그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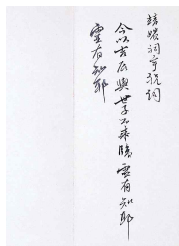


그림 41



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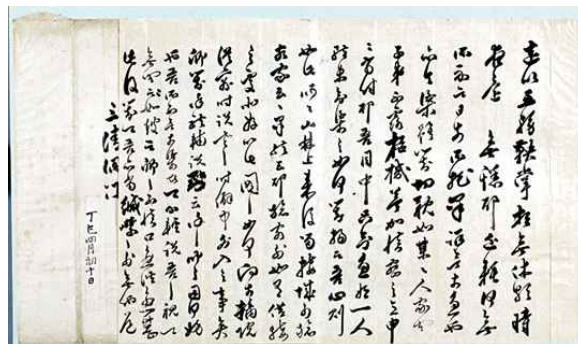
그림 43

또한 최근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과 한국고전 번역원에서는 정조의 비밀 편지를 모은 어찰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서 문화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원장 임형택)과 한국고전번역원(원장 박석무)이 지난 9일 새로 발굴, 공개한 조선 제22대 왕 정조(正祖·재위 1776~1800년)의 어찰(御札·

임금의 편지) 299통이 학계는 물론, 정치권과 일반에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혁군주 또는 탕평군주로 각인된 정조가 그의 최대 정적(政敵)으로 알려진 노론 벽파(僻派)의 지도자 심환지(沈煥之·1730~1802)에게 보낸 비밀편지들은 당시 노론 시파(時派)와 벽파, 남인, 소론 등 사색당파(四色黨派)의 대립 속에서 정국을 주도하려 했던 정조의 정치가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²⁷⁾

새 자료는 정조의 군주상을 새롭게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공식 사료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정조의 인간적 면모와 조선왕조 궁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정치세계의 흑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식 교수는 “기존에 채제공·정약용 등 남인의 입장에서 정조를 이해해온 것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이번 비밀편지들은 보여준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새 자료는 기존의 선비·학자 타입의 군주상과는 다른, 국왕으로서 정국을 주도하려 했던 정치가로서의 정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조에 가장 적대적인 세력으로 알려졌던 노론 벽파가 당시 정조의 입장에서는 노론 시파나 남인, 소론 못지않게 없어서는 안될 정파였다는 것도 흥미롭다.²⁸⁾



이 기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자료를 통해 당시의 정치상황을 짐작할 수 있고 정조의 새로운 군주상을 엿볼 수 있다. 정조는 지금까지 학자 타입의 냉철하고 차분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통해 때로 흥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다소 인간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 편지에는 정조가 심환지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욕설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어 지금까지의 정조의 이미

27) 문화일보 2009년 2월 9일자 1·3면, 10일자 7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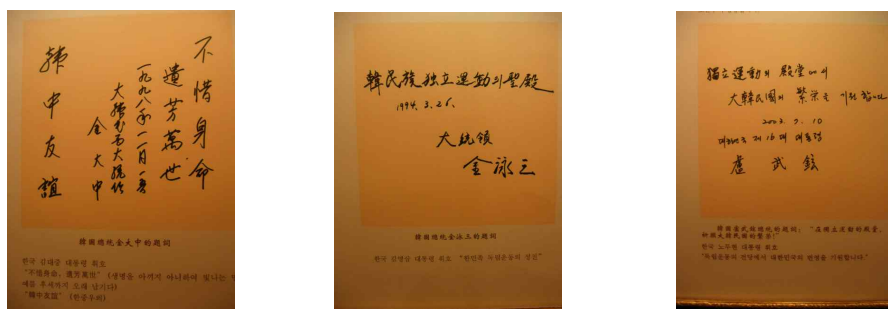
28) 문화일보, 2009년 2월 14일.

지와는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시대 임금이 친필 편지를 하사하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왕래하는 경우는 공식 기록상으로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당시 임금의 밀찰은 불에 태워지는 것이 관행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런 친필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은 올바른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자료는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자료가 대필한 자료이거나 활판 인쇄로 쓰여진 것이었다면 그 신빙성은 떨어질 것이다. 그것이 손으로 직접 쓴 친필 자료이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갖게 된다. 친필 자료이기 때문에 필자의 개성이나 개인사의 자료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표절 시비에도 휘말리지 않는다.

여러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명소에는 언제나 그곳을 기념하는 손글씨 자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나 국립묘지, 독립기념관 등에는 역대 대통령, 김구 선생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손글씨가 남아 있다. 또는 유명 건물, 다리, 기념탑 등에도 현판이나 주련, 석각 글씨가 손글씨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행사장에 마련된 방명록에도 많은 사람들이 손글씨로 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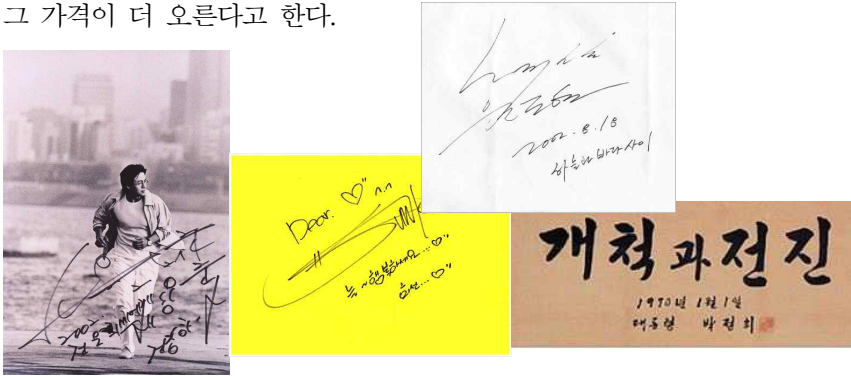


(중국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남아있는 대통령들의 글씨)

또한 미술품 경매시장이나 옥션거래소에서도 손글씨 작품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역사성을 띤 인물들의 붓글씨 작품, 예를 들어 백범 김구 선생의 작품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예 작품, 윤보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작품들은 경매시장에서 인기있는 종목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척과 전진’(그림) 작품은 63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 옥션 거래소에서는 유명인의 싸인이 우리나라 가격으로 약 4~5만

원에서부터 50여만원까지의 가격에 거래된다고 한다. 그것이 포스터에 작성된 것이거나 그 연예인의 풀네임이 적혀져 있거나, 그 포스터나 사진이 미사용된 것이라면 그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한다.



(배용준 싸인, 김희선 싸인, 윤도현 싸인, 박정희 작품)

사람들은 이렇게 손글씨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댓가를 치르고서 그것을 소장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심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손글씨가 제공하는 ‘특별함’이나 ‘유일성’ 때문일 것이며, 그 손글씨에 남아있는 그 개인의 ‘역사성’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 유일한 손글씨 자료가 필자의 개인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그 빛을 발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III. 나오기

본 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손글씨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손글씨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 교육에 있어서 손글씨 쓰기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修身과 실용성, 개인사의 자료 이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손글씨 쓰기에는 修身의 측면이 있다. 글씨는 그 사람의 배움이나 재능, 의지,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를 닦는 것은 바로 그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다. 글씨를 반듯하게 연마하는 과정을 거쳐 심신을 바로잡고 인격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이것은 바로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에게서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 같은 현상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난폭성, 충동성, 기타 극단적인 행동적 문제들도 나타난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 도를 넘어선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성격장애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요즘 많은 서사작업이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손글씨가 점차 퇴화되고 있는 실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교육이란 올바른 인성을 완성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고,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손글씨 쓰기가 修身의 한 방편으로서 참다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 교육 방법이고, 이런 교육 방법이 현시대에 드러나는 학생들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우리 학교 교육에서의 쓰기교육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덕목인 것이다.

다음으로 손글씨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먼저 손글씨는 디자인의 한 요소가 되어 상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손글씨는 이제 정보만을 전달하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상품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신 성장동력이 된 것이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쓰기교육의 상실로 인해 사장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손글씨 쓰기는 시험과 같은 현실 속 경쟁 상황에서도 경쟁력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요즘은 컴퓨터 글씨에만 익숙할 뿐 글씨를 직접 손으로 쓰는 일에는 익숙치 않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글씨 쓰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담이 결국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조리있게 표현해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험과 같은 긴장 상황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결국 이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니, 손글씨 쓰기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밀리지 않고, 자신의 지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손에 의한 창의력이 소실되기 전에, 그리고 힘들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글씨 쓸 수 있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손글씨 쓰기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손글씨 자료는 개인의 역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필자의 친필 자료에는 한 개인만의 특별하고 유일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개인사를 정립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개인의 역사는 또한 사회의 역

사가 될 수도 있고 인류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유언이 글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자필 유언만이 법적 효력이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디지털화된 기계 글씨에는 위조의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는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손글씨 자료는 후손들에게 중요한 추모자료이며 역사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의 자산이 쓰기 교육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기계 글씨에 묻혀서는 안될 것이니, 이를 통해서도 쓰기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필적학자들은 필자의 손글씨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 예를 들면 글자의 크기, 획의 길이, 기울기의 정도, 획의 처리 방법 등과 같은 특징들을 보고 그 사람의 개성이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주로 펜글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주장의 대상이 펜으로 쓴 글씨가 아니라 붓으로 쓴 글씨의 경우라면 그 가능성은 더 확대된다. 굵기가 단순한 펜글씨에서 이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굵기와 농담에서 무한한 변화를 표현해 낼 수 있는 붓글씨의 경우는 획 하나를 통해서 거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손글씨는 다양한 필기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쓴 글씨를 말한다. 붓은 그 여러 필기도구 중의 하나이고, 붓글씨는 과거에 가장 일반적인 손글씨였다. 과거에는 이런 붓글씨 연습이 인격 수양의 한 요소가 되었는데,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요소 하나를 잃어가고 있는 듯 하다. 펜이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 붓으로만 필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손글씨 자체를 포기하고 기계 글씨만을 선호하는 풍조는 분명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R.Wicks-Nelson/정명숙 역, 『아동기 행동장애』, 시그마프레스, 2004.
- 華正書局편집본, 『歷代書法論文選』, 臺北, 華正書局, 1984.
- 高尚仁 著, 『書法心理學』, 東大圖書公司, 1986.
- 高尚仁 編著, 『書法心理治療』, 香港大學出版社, 2000.
- 구본진, 『필적은 말한다』, 중앙북스, 2009.
- 김병기, 「한국의 서예 교육, 어떠한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21세기 문화 창달과 개혁의 새로운 Agenda ‘한자와 서예교육’-」 『한국서예비평학회』, 2008.
- 문화재청 편, 『궁궐의 현판懸板과 주련柱聯』, 수류산방, 2007.
- 브라이언 이니스 지음/이경식 옮김,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긴다』, Human&Books, 2005.
- 브라이언 이니스 지음/이경식 옮김, 『프로파일링』, Human&Books, 2005.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국제서예학술대회 논문집Ⅳ』, 2003.
- 신호열 편역, 『완당전집』 2, 제7권, 雜著, 민족문화추진회, 1996.
- 劉熙載, 『劉熙載文集』, 江蘇古籍出版社, 2001.
- 장진선, 『인간관계 심리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2005.
- 조용현,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푸른역사, 2002.
- 토머스 키다 지음, 『생각의 오류』, 박윤정 옮김, 열음사, 2007.
- <http://www.graphotherapy.com/>

투고일 : 2009. 8. 20 / 심사개시일 : 2009. 9. 4. / 심사완료일 : 2009. 9. 15

Abstract

*The importance of handwriting in digital age and the strengthening of writing
education./Moon Hae Jeong*

This paper contains the importance of handwriting and writing education. This paper is segmented into three parts -moral training ,usefulness of handwriting , the article of autobiography.

First, handwriting is moral training. Because handwriting contains his learning experiences, talents, mental abilities, self confidence. Handwriting is to practice morals. If you write a letter correctly, you will correct your personality and have self control power, and then you can change your life at last.

As handwriting is means changing our life, we should not give up handwriting education in school.

Second, The value of handwriting is emerging in the aspect of its usefulness. First, handwriting has become the factor of commercial design, playing a role to elevate the value of commodity. Handwriting is not only a simple letter but also new engine of industry. Moreover handwriting is a factor of personal competitiveness, being means eliciting his mental ability. Before we lose our creativity, we should make our younger student write a letter with his hand to make a habit of handwriting.

In the end handwriting is the material proving personal history. Handwriting articles contain private aspects of life, establishing personal history. Such a personal history, if collected, becomes social history, in the end becoming human histor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we must strengthen writing education, Because handwriting is the asset that cannot be imitated by others.

Handwriting is to write letters with various writing tools for himself. writing brush is one of the various tools writing a letter , letters written with writing brush has been general in the past in orient. Although we need not write a letter only by writing brush at present, the prejudice that word processor is superior to handwriting should be changed.

Key words : handwriting, moral training, usefulness, personal history.